

관전사로 본 1910년대 『신한민보』 연재 서사물의 1차 세계대전 전유 양상

—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흥언의 「철혈원앙」을
중심으로

염 창 동*

요약

이 글은 『신한민보』 소재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흥언의 「철혈원앙」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문학적 전유 양상을 분석한다.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전쟁을 전유한 문학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 두 작품은 1차 세계대전 중 연재되어 서사 내외적으로 동시대 전쟁을 과거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에 주목하여 이 글은 관전사적 관점을 참고하여 두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는 관전사적 관점의 시공간적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이론적 작업이다. 우선 백일규는 주로 보불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연속성을 통해 프랑스 민중의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부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동시대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한탄한다. 유럽의 전쟁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전망을 읽을 수 없었던 그는 그것에 관한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신한민보』에 연재된 작품 가운데 최초로 1차 세계대전을 서사화하고 있지만, 식민지조선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전유하지 못한 채 머물러있다. 한편 흥언은 1차 세계대전과 식민지조선 사이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유한다. 그는 「철혈원앙」에서 1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인 발칸전쟁을 숭고한 독립전쟁으로 제시한다. 이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에 대한 동경에 기인한다. 나아가 그는 한반도를 동양의 발칸으로 인식한다. 후속작 「동포」에서 그는 상의 독립전쟁을 통한 승리와 해방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상상력을 제시한다. 다만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그것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결합을 통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흥언의 작품은 과거 발칸전쟁과 동시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래 가상의 독립전쟁을 한데 잇는 독특한 형태의 관전사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주제어: 1차 세계대전, 『신한민보』, 관전사,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흥언, 「철혈원앙」

목차

1. 머리말
2. ‘미완’의 전쟁, 전망의 부/재의 사이: 「세계에 제일 큰 연극」
3. 송고한 독립전쟁, 전전으로부터 전후의 문턱까지: 「철혈원앙」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1910년대 재미 한인 기관지 『신한민보』의 연재 서사물에 드러난 동시대 1차 세계대전의 전유 양상을 살핀다. 이는 재미 한인문학 연구의 지평 안에서¹⁾, 1차 세계대전이 한국문학에 남긴 흔적을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1차 세계대전과 한국문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²⁾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구체적인 작품을 대

1) 이유미는 『신한민보』의 작품들이 ‘망명지문학’, ‘항일문학’으로 소개된 이래,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나 여전히 정리와 개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유미, 「식민지 한국 정치소설의 모색과 이항우-미주(美洲) 발간 『신한민보』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61-162면.

2) 이에 대해서는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권보드래, 「영혼, 생명, 우주-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죽음’의 극복」, 『개념과 소통』 7,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1;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허수, 「20세기 초 한국의 평화론」,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김동식, 「진화(進化)·후진성(後進

상으로 이에 접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데에서 이 글의 문제 의식은 출발한다.

19세기와 20세기의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는³⁾ 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의 전쟁들과는 몇 가지 지점에서 구별된다. 그것은 우선 그 파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초의 현대적 총력전(total war)’이었다. 또한 전후처리에 관한 국제적이고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된 전쟁이었다. 유럽을 넘어 일본의 참전과 노동자나 용병으로 동원된 비서구인들도 다수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비서구권 국가들이 국제무대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전쟁의 결과 오랜 앙시앵레짐은 해체되고 민족국가 체제는 보편화됨으로써 이른바 근대(성)를 완성⁴⁾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⁵⁾이라는 슬로건처럼 일종의 성전(聖戰)으로 이해되기도 했던⁶⁾ 이 전쟁은, 점차 참혹한 희생으로 인한 염전(厭戰) 분위기 속에서 서구의 근대(성)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낳기도 하였다.⁷⁾ 결국 이 전쟁은 근대의 완성과 동시에 그것의 몰락까지

性)·1차 세계대전 『학지광(學之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문준호, 『『매일신보』의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보도 추이 분석: 대전 발발부터 동아시아 연대론 주창까지』, 『아시아리뷰』 21,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1; 이만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진화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1 등을 주로 참고.

3) 에릭 홉스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을 장기(長期) 19세기의 끝이자 단기(短期) 20세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및 에릭 홉스봄,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 2001.

4) 마크 마조위는 1789년의 근대적 변화가 1918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마크 마조위, 김준형 옮김, 『암흑의 대륙』, 후마니타스, 2009.

5) 영국 소설가 H. G. 웰스가 개전 직후 1914년에 출간한 책 제목 “The war that will end war”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편 웰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식민지조건에 유입되어 주요 사상가로서 읽고 호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H. G. 웰스 이입과 담론 형성」, 『사이間SAI』 2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참고.

6) 당시 서구의 많은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세계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믿었다. 로버트 거위스, 최과일 옮김,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 김영사, 2018, 25-27면.

7) 비록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응으로 집필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끝난 1918년에 발간된 『

도 예견한 미증유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1차 세계대전은 당시 ‘구주전란(歐洲戰亂)’, ‘구주대전(歐洲大戰)’ 등으로 불리며 식민지조선에 소개되었다. 당시 국내 유일의 일간지 『매일신보』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황에 대한 보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어나갔다.⁸⁾ 『매일신보』는 전황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호외를 발행하기도 하고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신기도 하였다. 일례로 「구주의 전란과 동양의 안위」(1914.8.3.-13.)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유럽의 전쟁이 식민지조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 안심시키면서도, 조선인들은 동요하지 말고 일본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향후 전쟁의 양상이 ‘인종 대결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 보았다. 『매일신보』의 보도 양상은 대체로 흥미본위와 일본군의 위용을 알리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재미 한인의 기관지 『신한민보』 역시도 1차 세계대전의 전황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갔다.⁹⁾ 다만 『신한민보』는 주 1회 4면 발행 체제로서 국내의 『매일신보』에 비하면 그 보도의 양은 물리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¹⁰⁾ 그러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달리, ‘에스닉 미디어’¹¹⁾ 『신한민보』에는 재미 한인의 디아스포라적이고 민족

서구의 몰락』은 전후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제공하였다. 오스발트 슈팽글러, 양해립 옮김, 『서구의 몰락』, 책세상, 2019.

8) 『매일신보』에서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최초의 보도는 1914년 7월 1일부터 확인된다. 「동서전보(東西電報)-대오국어조전(對奧國於弔電)」(1914.7.1.). 이후 8월부터는 전쟁 관련 보도가 폭증하게 된다.

9) 『신한민보』에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본격적인 보도는 1914년 7월 30일부터 확인된다. 「구라파가 크게 요란」(1914.7.30.); 「법국도 전쟁 예비」(1914.7.30.); 「유럽의 큰 전쟁」(1914.8.6.); 「유럽 전쟁 결국의 개략」(1914.9.10.) 등이 이어진다.

10) 이외에도 『신한민보』는 휴간이 잦아 정기 간행물로서 입지가 약했으며, 지면의 편집방식이나 가독성 등에서 『매일신보』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진다. 1910년대 『신한민보』의 매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김영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 1907~1919년까지 「공립신보」와 「신한민보」에 게재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1 참고.

(주의)적인 논조로써 전황을 분석하는 글들이 몇 차례 실리게 된다. 이는 유학생들의 목소리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가령 ‘코벨대학 2년생 김현구’는 「유럽 전쟁에 대한 우견」(1914.10.22.-29.)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뒤이어 ‘스코틀랜드 유니언 대학교생 장택상’은 「한인과 이번 전쟁의 평론」(1914.11.26.)을 신는다. 이 글들은 대체로 세계대전을 둘러싼 서구 열강들의 위선적이며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일본의 행위와 견주어 살피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신한민보』에 연재된 서사물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1910년대 『신한민보』에 연재된 서사물은 번역과 창작을 합해 30편이 넘는다. 다만 장르별 세부적인 작품목록은 선행연구마다 다소 상이하다. 이는 ‘소설/희곡/사설’ 등의 장르 구분에 관한 기준과 견해가 연구자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¹²⁾ 그러한 이유로 당시에 근대적 장르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매체의 불안정한 여건 및 필진의 부족으로 인해 『신한민보』의 서사물들이 대체로 소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르 구분과 관계없이, 이들 작품은 단형서사물과 역사전기물이 주를 이룬다. 그 내용도 재미 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 기인한 애국계몽과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동

11) 정한나는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가 스스로를 위해 직접 발행하는 미디어’로서 『신한민보』를 전형적인 ‘에스닉 미디어’로 정의한다. 정한나, 「에스닉 미디어는 동포의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구보학보』 36, 구보학회, 2024, 58면.

12) 가령 최초로 『신한민보』에 실린 문학작품을 자료집으로 엮어낸 조규익은 ‘번역’ 작품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1910년대 『신한민보』에 발표된 ‘소설’은 모두 17편이다.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1-6』, 월인, 1999.) 반면 송명진은 기존에 일부 누락된 작품과 ‘번역’ 작품도 포함하여 1910년대에 발표된 ‘소설’을 모두 34편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조규익이 ‘희곡’으로 분류했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송명진, 「지리적 경계의 이탈과 개화기 소설의 지속과 변이-1910년대 『신한민보』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255-256면) 김진실은 앞서 송명진이 ‘소설’로 분류한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사설’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김진실, 「20세기 전반 재미한인문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시대 국내의 『매일신보』의 서사물들이 주로 오락성과 대중성을 추구한 것과 구별된다.¹³⁾ 특히 『신한민보』의 역사전기물 중에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으며,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는 유럽의 전쟁을 서사에 전면화하여 그려낸 작품들도 발견된다.

이 글은 1910년대 『신한민보』의 연재 서사물에 드러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총 30편이 넘는 작품 가운데 대상 텍스트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①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발표된 작품일 것 ② 서구의 전쟁담이 주요 소재인 작품일 것 ③ 어느 정도의 분량과 서사를 갖춘 작품일 것. ④ 번역물이 아닌 창작물일 것. 이 네 조건에 따라 이 글은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홍언(필명 동해수부 東海水夫)의 「철혈원앙」을 분석한다. 이 두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연재되었다. 백일규의 작품은 『신한민보』에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최초로 서사화하고 있다. 홍언은 유럽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연재하였는데,¹⁴⁾ 그중 「철혈원앙」은 동시기 『신한민보』 소재 연재물 가운데 가장 분량이 길며 구성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모두 서사 내외적으로 동시대 전쟁의 원인을 과거 전쟁으로부터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들 작품에는 일종의 연속·연쇄되는 전쟁에 관한 작가 나름의 인식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러한 특징을 읽어내기 위해 이 글은 ‘관전사(貫戰史)’를 참고하고자 한다. 관전사란 ‘전쟁과 전쟁을 관통하는 역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전후문

13) 한일합방 이후 애국계몽 담론이 거의 소거되다시피 한 국내의 사정과 다르게 미주에서는 국내에서 금서 조치당한 책의 재발간과 유통, 동시대 위인의 발굴 등을 통해 애국계몽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김진실, 위의 논문, 35-36면.

14) 해당 작품에는 폴란드의 망국을 다룬 「과란망국후정형」(1914.8.20.-27.), 세르비아의 발칸전쟁을 다룬 「철혈원앙」(1916.5.4.-1917.4.19.),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영국의 첩보전을 다룬 「옥란향」(1918.5.16.-7.4) 등이 있다. 다만 「옥란향」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연애소설과 추리소설적인 성격이 짙어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을 분석하는 데에 관전사가 유용할 수 있다는 한수영의 제안¹⁵⁾ 이래로, 관련 시도들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¹⁶⁾ 다만 그것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1940년대의 태평양전쟁이나 1960년대의 베트남전쟁 간의 연관성·연속성을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이 글은 1910년대의 1차 세계대전에 주목한다. 관전사를 제안한 일본의 맥락¹⁷⁾이나 그것을 전유한 한국문학 연구의 경향을 고려할 때, 1차 세계대전은 그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관전사의 관점으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의 당대 ‘명칭’과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함이다. 모든 전쟁의 명칭은 사후적이다.¹⁸⁾ 1차 세계대전을 호명하는 ‘1차’나 ‘세계’라는 현재의 기표와 달리, 구주대전이라는 명칭이 합이하듯 그것은 당시 ‘유럽적인’ 전쟁으로 시작·인식되었다. 특히 그 무렵 유럽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었다. 가령 19세기 중후반의 크림전쟁(1853-56)이나 보불전쟁(1870-71),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78)은 물론이고, 바로 직전의 발칸전쟁(1912-1913) 등이 그러하다. 1차 세계대전은 앞선 전쟁들을 전사(前史)에 두며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¹⁹⁾ 사실상 ‘예고된’ 전쟁이었다. 백일규와 홍언의 작품

15)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16) 관련 연구로 임창동, 「하근찬 장편소설 『야호』의 관전사(貫戰史)적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 『사이間SAI』 25, 국제한국문화학회, 2018; 양수민, 『『청맥』 지식인 그룹의 관전사(trans-War History) 의식과 한국전쟁의 재의미화』, 『한민족문화연구』 85, 한민족문화학회, 2024 등이 있다.

17) 나카무라 마사노리, 유재연·이종욱 옮김, 『일본전후사 1945-2005』, 논형, 2006, 15-16면.

18) 전쟁의 명칭에 관한 당대성과 사후적 정착에 관해, 다음의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훗날에 전쟁 ‘명칭’이 정착되고 나면 그 ‘명칭’과 전쟁 당시에는 실제로 어떻게 불렀고,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사실’ 사이에 다소 거리감이 생깁니다. 또한 전쟁 ‘명칭’과 전쟁 ‘실상’ 사이에도 간극이 벌어집니다.” 하라 아키라, 김연옥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시아 50년 전쟁 1894-1945 다시보기』, 살림, 2015, 40-41면.

19) 김준석, 「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비평』 108, 역사비평사, 2014.

에서 드러나는 동시대 세계대전에 대한 인식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른 하나는 관전사의 개념 자체와 그 범주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관전사를 제안한 일본의 맥락과 그것을 전유한 한국문학 연구의 흐름에서 중요하게 겹치는 지점은 ‘동아시아’의 ‘1945년’을 전후한 특수한 시공간이다. 이 무렵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패전과 해방 등 복합적인 상황이 주조해낸 역사의 단절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관전사의 개념이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시공간을 넘어, 관전사의 시공간적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면, 가령 조선을 둘러싼 청일-러일전쟁부터 양차대전 사이의 전간기(戰間期)를 지나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전의 역사를 폭넓은 ‘관전사’로써 조망할 수 있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관전사의 개념과 범주를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유럽의 시공간으로 확장·적용해본다면 어떠한 논의가 가능해지는가. 이 글은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에 관전사를 참고하여 백일규와 홍언의 작품에 드러난 1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유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두 작가가 미증유의 사건인 동시대 세계대전을 전유하는 방식에서 겹치거나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다.

한편 백일규와 홍언은 해외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그들은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한 동료이자 벗이기도 하다.²⁰⁾ 그

155-156면.

20) 백일규(1880-1962)와 홍언(1880-1951)의 이력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작품 발표 시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80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언은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고 1911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1년간 『신한민보』의 주필을 맡는다. 이 시기 안창호와 만남을 계기로 1913년 창립위원장으로서 그와 함께 흥사단을 조직한다. 이후 1915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신한민보』 주필을 다시 역임하고, 3.1 운동이 발발하자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백일규는 1905년 하와이로 떠나 이듬해

런 점에서 이들 작품에 항일정신이나 민족정신 등이 투영돼 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정된 결론을 잠시 미뤄보자. 만약 근대의 성취를 동시에 상징하는 1차 세계대전의 성격이, 근대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담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마주한 당시 지식인들이 문학으로써 상상하던 세계, 혹은 그 이후/너머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근대에 진입하는 순간으로부터 그 이후/너머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여기의 우리는 그로부터 어떠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글은 그 질문에 가 닿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고자 한다.

2. '미완'의 전쟁, 전망의 부/재의 사이: 「세계에 제일 큰 연극」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은 1915년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6회(미완)에 걸쳐 연재된 그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서사에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개전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신한민보』에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을 서사화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장르에 관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가령 일찍이 강은해²¹⁾와 조규익²²⁾은 이 작품을 '희곡'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다. 1914년 『신한민보』의 주필로 활동하며 안창호를 따라 흥사단에 가입한다. 이후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경제학과를 다녔다. 3.1 운동 직후 안창호가 상해로 떠나자 그를 대신하여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대리로 활동한다. 그러던 중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1920년 2.8 독립선언 1주년에 맞춰 한국 최초의 경제사 서적으로 평가되는 『한국경제사』를 출간하기도 한다. 두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을 주로 참고하였음.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최기영, 「미주지역 민족운동과 흥언」, 『한국근현대사연구』 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홍선표, 『재미 한인 독립운동을 이끈 항일 언론인 백일규』, 역사공간, 2018; 김선아, 「백일규의 민족운동과 재미한인단체 연합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21) 강은해,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 『서강어문』 3, 서강어문학회, 1983, 156면.

비교적 최근의 개별 연구에서 전영지²³⁾는 이 작품을 희곡 가운데 특히 ‘다큐드라마’로 분석한다. 그러나 김진실²⁴⁾은 이 작품을 희곡이 아닌 ‘역사소설’로 분류하고 우수진²⁵⁾도 이 작품을 희곡이 아닌 서사 장르로 파악한다. 이 글 역시 이 작품이 희곡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며²⁶⁾, 특히 역사전기물로 분류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작품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의 서언에 해당하는 ‘처소’와 ‘성질’ 부분, 사라예보 사건 직후의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그리는 ‘제1극’, 개전 직후의 프랑스를 그리는 ‘제2극’이 그것이다.

1극과 2극의 배경이 각각 당시 동맹국과 협상국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극에서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오스트리아 황후와 그를 위로하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그린다. 오스트리아 황후는 세르비아에 복수를 다짐하고, 독일 황제는 동맹을 근거로 개전을 선포, 그에 따라 독일 의회는 회의를 벌인다. 반면 2극에서는 독일의 개전 소식을 접한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배경으로 한 여성과 늙은 노동자의 대화를 그린다. 이들은 과거 독일에 패배했던 기억으로부터 복수를 다짐하며, 프랑스 군부는 항전을 결의한다.

이러한 1극과 2극의 내용은 등장인물의 지위와 전쟁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요컨대 전자에서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원한과 독

22) 다만 그는 이 작품이 당시 유럽의 전쟁을 소개하는 ‘희곡 형태의 전쟁 상황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1』, 월인, 1999, 225면.

23) 전영지, 「일제시대 재미 한인의 다큐드라마 『신한민보』 게재, 『세계에 매일 큰 연극』과 「희문 열혈」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9, 한국연극학회, 2016.

24) 다만 김진실은 작품의 연재 횟수를 5회로 적고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김진실, 앞의 논문, 19면.

25) 우수진, 「피식민 디아스포라의 억압과 욕망의 드라마-1910년대 재미한인의 희곡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67, 한국연극학회, 2018, 49-50면.

26) 작품의 제목인 ‘연극’은 장르적 명칭이 아니라, 우수진이 지적했듯 세계대전 자체를 비유한 수사적 표현이다. (위의 논문, 50면) 또한 작품은 지시문이나 대사가 아닌 서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체 역시 근대 초기 신소설이나 역사전기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일 ‘황제’의 정치적 야욕이 그려진다. 이와 반대로 후자에서는 여성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프랑스 ‘민중’이 공유하는 역사적·민족적 경험과 항진 의식이 그려진다. 이는 당시 유럽의 전황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상국에 대한 작가의 시선 차이와 동시대 세계대전에 대한 작가의 전유 양상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²⁷⁾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서사화하면서, 그 안에 과거 전쟁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과 기억을 함께 드러낸다. 그것은 주로 1극에서는 러일전쟁(1904-05), 2극에서는 보불전쟁(1870-71)에 대한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작품의 전체 서사 가운데 구체적인 한 축을 이루기보다는 단편적 언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과거 전쟁에 관한 작중인물들의 언급은 현재 개전을 마주한 인물들의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세계대전을 서사화하는 식민지 출신 디아스포라 작가의 전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극의 러일전쟁에 관한 인식은 독일 황제의 언급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개전을 선언하며 세계 패권의 야욕을 드러낸다. 다음은 독일 황제의 목소리가 담긴 부분이다.

오국은 서비아를 합병하며 덕국은 아라사를 합병하여 장차 우리가 세계에 막강지국이 될 지며 또한 아국과 같이 겁이 많고 속이 부인 나라를 근심할 이치가 없으니 우리는 지난 사기를 볼지라도 **일천구백사년에 아국이 저 조그마한 일본에게 지고 항복하였으니 우리 두 나라가 어찌 저와 같은 나라를 근심하리오.** 하물며 대 덕국 군사는 나폴레옹과 같은 개세영웅을 때려누웠으며 일천팔백칠십년에 범국 경성을 거침없이 들어갔

27) 전영지는 작가가 동맹국과 협상국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면서 “어느 편에 동조할지에 대한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영지, 앞의 논문, 209-210면.) 작품이 연재될 1915년 무렵은 아직 전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극과 2극에서 전쟁을 서사화하는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재해석의 여지가 마련된다. 요컨대 민중이나 민족의 시선이 더 부각되는 것은 2극 협상국 측이다.

고 거액의 배상을 받았거든 **아라사 같은 부패한 나라 일본에게도 평평 지는 저런 나라를 어찌 근심하리오.**²⁸⁾

위의 인용에서 ‘막강지국’을 꿈꾸는 독일 황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 이유는 바로 10년 전 러시아가 아시아의 ‘조그마한 일본’에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의 인식에는 전쟁의 힘의 논리와 더불어 아시아와 일본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주지하듯 러일전쟁은 ‘전쟁과 혁명의 세기’의 출발점에 놓이는 전쟁으로서, 서구가 비서구에게 패배한 첫 사건이었다.²⁹⁾ 또한 그 결과 포츠머스 조약, 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한일협약, 제1차 러일협약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후처리는 한반도의 지위 변화와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패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었다.³⁰⁾ 작중 독일 황제는 이러한 러일전쟁의 결과를 놓고 서구화된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본을 경계하기보다는, 일본과 러시아를 모두 알보는 것이다. 개전 이후 실제 동아시아의 전장에서 독일이 일본과 맞붙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모른 채 말이다.

독일과 일본이 중국 산둥반도에서 충돌³¹⁾한 것은 당시 ‘유럽적인’ 전쟁

28)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5.20. 4면. 강조는 인용자. 작품을 인용할 때는 가독성을 고려해 현대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음을 알린다.

29) 야마무로 신이치, 정재정 옮김, 『러일전쟁의 세기』, 소화, 2010, 9면.

30) 조명철,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266면.

31)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참전 양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대전 발발 직후 일본은 ‘중립’의 위치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1914년 8월 7일, 동맹국 영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잠수함의 격퇴를 요청해온다. 이튿날 일본은 영국측에 합류하여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고, 8월 23일 독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다. 이윽고 9월 2일 일본은 산둥반도에 상륙하며 11월 7일에는 칭다오를 점령하게 된다. 11월 9일에는 일본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경성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행사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 참고. (「국기의 해(海), 국기행렬 참가학생 만여 명, 만세만세 만만세」, 『매일신보』, 1914.11.9.) 이 기사는 일장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식민지조선인들의 행렬을 찍은 사진도

이 아시아로 확대되어 이른바 ‘세계대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바로 눈앞의 사태로 급진되자 식민지조선인들은 이목을 집중했다. 일례로 개전 직후인 1914년 10월에 창간된 『청춘』은 동아시아의 전장을 바라보며 11월 호에 독일 관련 특집 기사를 실는다.³²⁾ 그 내용은 대개 독일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황제를 칭송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조는 식민지인으로서 일본의 적국인 독일에 대한 상대적 호의가 발현된 것이었다.³³⁾ 몇몇 재미 한인들은 독일의 승리를 기원하며 기부금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³⁴⁾

그러나 이 작품이 연재된 시기, 이미 일본은 독일에 승리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었다. 각종 보도를 통해 세계대전의 전황을 접하던 『신한민보』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당시 상황에 견주어 봤을 것이다.³⁵⁾ 그렇다면 작중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는 독일 황제의 모습은 사실상 그를 비판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작가는 1극에서 독일 황제를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모두 얽잡아보며, 세계 패권의 야욕을 지닌 인물로 그린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독일 황제 역시도 전쟁의 침략자로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세계대전과 국제정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³⁶⁾

함께 신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충돌에 대한 『신한민보』의 보도는 일본의 선전포고 직후인 1914년 8월 27일 기사에서부터 확인된다.

32) 「독일국」, 『청춘』 2호, 1914.11, 5-35면. 이후 『청춘』은 3호에서는 오스트리아, 4호에서는 벨기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는다. 『청춘』의 기획 의도에 관해서는, 최우석, 「식민지 조선인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3·1 운동」, 『사림』 70, 수선사학회, 2019, 169-170면.

33) 이태훈, 앞의 논문, 206-208면 참고.

34) 「우리 동포가 덕국 군비를 보조」, 『신한민보』, 1914.9.10., 1면.

35) 이 무렵 『신한민보』에는 독일에 승리한 일본이 중국과 유럽 전장에 파병을 준비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일본을 비판하는 논설이 다수 실린다.

36) 전영지는 작품 연재 직전에 발생한 ‘루시타니아호 침몰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반독(反獨) 정서도 백일규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한다. (전영지, 앞의 논문, 211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는 「루시타니아 사건과 망국민의 회포」, 『신한민보』, 1915.5.20., 2면.

침략자로서 독일 황제에 대한 비판은 마지막 장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다. 그것은 독일 군부대신이 ‘중립국’인 벨기에조차 공격할 것을 선언하자, 죽은 비스마르크의 영혼이 현현하여 “나의 작년 외교수단으로 되었던 덕오이 삼국동맹이 와해될까 염려”³⁷⁾하는 장면이다. 실제로 비스마르크의 대사처럼, 작품이 연재될 무렵 중립을 표방하던 이탈리아가 영국과 밀약을 맺고 협상국 측에 가담하면서 사실상 삼국동맹이 해체되었다.³⁸⁾ 즉 작가는 전황과 국제정세를 둘러싼 동시대적 사건을 서사에 투입시킨 것인데, 이것이 비스마르크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시 비스마르크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지혜와 행동력을 겸비한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거나 야욕을 지닌 철혈재상의 면모를 부각하는 경우로 나뉜다.³⁹⁾ 이 작품은 그중 전자의 경우 즉, 전쟁을 억제할 외교적 지혜를 지닌 인물로 비스마르크를 묘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독일 황제를 비판하는 셈이다.⁴⁰⁾

그렇다면 2극의 경우는 어떠한가. 독일의 개전 소식을 접한 프랑스 파리의 한 여성과 노동자의 대화 장면에서 과거 보불전쟁의 기억이 드러나는데, 다음은 여성의 연설 장면이다.

여러분 신사부인이여 불지어다. 저 골목에 울고 서 있는 저 동상 불지

37)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6.17., 4면.

38) 「이탈리가 덕오와 개전함」. 『신한민보』, 1915.5.27., 1면; 「이탈리의 선전」, 『신한민보』, 1915.5.27., 2면.

39) 근대 초기 비스마르크의 번역과 표상에 대해서는 손성준, 「도구로서의 제국 영웅-20세기 초 한국의 비스마르크 전기 번역」, 『현대문학의연구』 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손성준, 「동아시아 번역장(翻譯場)과 이중의 번역 경로-『조양보』 속 비스마르크의 형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주로 참고.

40) 이러한 1극의 내용은 작품이 연재되기 2달 전에 실린 기사 「구주대전란기」(1915.3.18.)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차 대전의 발발을 재구성하며 독일 황제가 오스트리아 황제를 위로하는 장면이나, 전쟁을 선포하는 독일 황제에게 ‘지하에서 노기를 발산했는지 모르느’ 비스마르크를 언급하는 장면 등이 유사하다.

어다. 왜 웃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 우는 모양을 하였는가. 사십오 년 전 보법전쟁 시에 우리의 사랑하던 조국 강산 스트라스부르 도성을 덕인에게 빼앗김을 기념코자 함이 아닌가. 나는 불행히 남자가 되지 못하고 여자가 된 것이 유한이로다. 만일 내가 남자가 되었다면 오늘날 덕국이 개전하는 기회를 인하여 저와 같이 보기 싫은 동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차라리 불에 녹여 가지고 총알이나 대포알을 만들어 가지고 덕황 빌헬름의 성한 팔 하나마저 부러뜨리든지 우리의 잃었던 옛 강토를 회복하든지 하지 않겠는가.⁴¹⁾

이 여성은 작중 “이십세기에 여권을 주창하는 여걸이 아니면 곧 십만명의 적십자군을 지휘하는 여장군”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의 연설 또한 국가의 요구와 일체화한다는 점에서 일견 이전 시기 유행한 『애국부인전』이나 『라란부인전』 등의 장면을 상기시킨다.⁴²⁾ 그런데 더 중요한 지점은 이 장면에서 과거 보불전쟁의 기억이 ‘울고 있는 동상’으로 물질화되어 있으며, 여성은 그 고정된 표상으로부터 ‘사랑하던 조국 강산’을 빼앗긴 경험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미를 더하는 것은 이 여성 앞에 나타난 남루한 행색의 한 늙은 노동자이다. 여성은 전쟁에 나서겠다고 자청하는 그를 처음에는 의심하고 비웃는다. 그러나 그 노동자가 가난의 원인이 자신의 게으름 탓이 아닌, “보법전쟁 이후에 배상금을 빌어 물어준 까닭”에 있다고 말하자 여성의 태도는 급변한다. “열세 살부터 오늘까지 오십팔 세 되도록 손이 터지며 발이 닳으며” 밤낮으로 일해도 독일에게 빼앗기다시피 했던 처지를 분개하는 노동자를 보며, 여성은 “잃었던 옛 강토를 당신이 아니면 그 누가 찾으리오”⁴³⁾라며 그 노동자를 국토회복의

41)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6.24., 4면. 강조는 인용자.

42) 이에 대해서는 송명진, 「역사·전기소설의 국민여성, 그 상상된 국민의 실체」,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박인원, 「네이션 빌딩과 여성영웅의 서사」, 『카프카연구』 31, 한국카프카학회, 2014 주로 참고.

43)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6.24., 4면.

기수가 될 프랑스 민중(남성)의 대표로 내세운다.

이러한 2극은 과거 보불전쟁의 기억을 안고 작금의 세계대전을 마주하는 프랑스 민중을 그린다. 과거 패전의 기억은 개인적 경험이 아닌, 국토의 상실이나 막대한 전쟁 배상금의 책임이라는 역사적·민족적 경험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곧 현재 독일에 대한 항전의 당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불전쟁의 의미화 방식에 대해서는 『신한민보』의 다른 기사도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작품이 연재되기 2달 전에 실린 「법국의 소년 여자 비행가」(1915.3.11.)라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세계대전 중 비행사가 된 한 프랑스 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례를 “보불전쟁 이후로 가슴에 첩첩히 쌓아두고 있던 법국 사람의 한은 날로 심해지던 민족적 상황에 위치시킨다. 요컨대 작품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침략자와 저항자로 표상되며, 세계대전의 전사(前史)로 제시된 보불전쟁은 프랑스의 민족의지를 일깨우는 의미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백일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대전을 서사화하면서도 그것과 식민지조선인들 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작중 서언의 언급으로 드러난다. 그는 지금의 연극(세계대전)을 전 세계 인구가 관심 있게 구경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극에 참여 못 하는 우리 한인이야 구경인들 뜻있게 하리오”⁴⁴⁾라며 한탄한다. 구경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전쟁은 결국 ‘남의 전쟁’으로 남게 된다.⁴⁵⁾ 그런 점에서 백일규가 독일과 프랑스를 각각 침략자와 저항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곧바로 프랑스에게 호의적이거나 그의 승리를 기원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어느 편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이는 작품 연재 직전에 실린 그의

44)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5.13. 2면.

45) 이에 대해 다음의 언급을 참고할 만하다.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세계성·동시성을 ‘경험’하면서도 참여 불가능성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식민지 자체가 결코 존재와 가능성을 통일한 ‘나’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승기, 「폐허의 사상·세계전쟁과 식민지조선, 혹은 ‘부재 의식’에 대하여」,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328면.

논평인 「전쟁과 인물 평론」(1915.4.22.)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덕국이 패하든지 법국이 패하든지 유럽은 백인의 유럽이니 우리는 아세아에 눈을 두고 정신을 차려 우리 물건을 우리가 찾아야 함을 역설한다. 즉 중요한 것은 전쟁이 벌어지는 ‘백인의 유럽’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가 ‘우리’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자각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작중 독일-프랑스의 관계나 보불전쟁과 세계대전 사이의 관전사적 인식은 재미 한인 독자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화소(話素)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인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나 전망도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세계대전을 다루면서도 2극에서 민족의식의 자극을 위한 화소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룬 만큼, ‘미완’으로서의 결말의 부재는 바로 이러한 대안과 전망의 ‘부재’를 은유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동시에 ‘미완’으로서의 결말은 역설적으로 대안과 전망의 가능성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서언에서 백일규는 전쟁이 아직 “극점에 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제1극과 2극을 지나 아직도 ‘제3극’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적는다. 작품도 2극으로 미완이기에 그가 말하는 전쟁의 ‘제3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극과 2극의 배경이 먼 ‘백인의 유럽’임을 고려할 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제3극’이란 추정컨대 그가 바란 아시아와 식민지조선의 향전을 의미하는 듯하다.⁴⁶⁾ 그는 “이 연극(제3극인 용자의) 시기는 3년이나 4년이 될 듯하다”⁴⁷⁾라고 적는다. 그의 말대로 몇 년이 지난 후, ‘제3극’은 민족자결과 독립의 ‘선언(manifesto)’⁴⁸⁾이 되어 식

46) 이 작품의 제목이 ‘유럽’이 아닌 ‘세계’의 연극을 표방했음도 참고할 만하다. 백일규는 구주대 전으로 불린 당시 세계대전의 의미가 ‘유럽적인’ 것을 넘어 진정 ‘세계적인’ 것으로 전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식민지조선을 비롯한 비서구의 향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까.

47)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5.13. 2면.

48) 당시 선언에는 ‘proclamation, declaration, manifesto, oath’ 등의 함의가 중첩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래를 당겨쓰겠다는 의지는 manifesto에서 가장 분명하다. 권보드래, 「미래로의 도약, 3·1 운동 속 직접성의 형식」,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53면 및 앞

민지조선에 도래했음을 부언하고 싶다. 그러나 작품이 연재된 1915년 무렵은 식민지인으로서 '전후'를 상상할 그와 같은 언어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런 점에서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은 『신한민보』에서 1차 세계대전을 서사화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여 불가능한 '남의 전쟁'으로 인식함으로써 충분히 전유하지는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3. 송고한 독립전쟁, 전전으로부터 전후의 문턱까지: 「철혈원앙」

홍언은 『신한민보』에 수백 편의 글을 실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한 문학가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400여 편이 넘는 시를 발표한 만큼 그의 문학적 행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⁴⁹⁾ 홍언의 서사문학에 관한 연구는 그에 비해 비교적 미진한 셈이다. 「철혈원앙」은 홍언이 '동해수부(東海水夫)'라는 필명으로 1916년 5월 4일부터 1917년 4월 19일까지 총 37회⁵⁰⁾에 걸쳐 연재한 소설이다. 연재 지면에 '소설 단편'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중편소설에 해당한다. 이는 1910년대 『신한민보』의 연재 서사물 가운데서도 가장 긴 분량과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철혈원앙」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작품은 발칸전쟁 시기 터키의 오랜 지배를 받던 세르비아를 무대로 한다. 세르비아의 명문 애국자 집안의 딸 플로렌스와 의협심 많은 청년 막커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

의 책, 28면.

49) 비교적 최근의 관련 연구에는 김아연,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자의식」,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김아연, 「홍언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 『한국시가문화연구』 53,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등이 있다.

50) 「철혈원앙」의 마지막 회는 38회로 적혀 있지만, 중간에 31회가 누락되어서 사실상 37회 연재되었다.

게 된다. 그러다 터키군에 의해 플로렌스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막커는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 상심한 플로렌스에게 어느 날 세르비아 매국노의 딸 코라가 찾아온다. 매국노인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고자 하는 코라와 함께 플로렌스는 남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 세르비아의 독립을 위해 터키군과 싸운다. 전장에서 플로렌스는 막커와 재회하지만, 막커와 코라는 터키군의 총에 맞고 쓰러진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쓰러진 두 사람을 뒤로한 채, 구국의 일념으로 세르비아의 국기를 들고 선두에서 군사들을 격려한다. 세르비아 군사들은 그러한 플로렌스를 전장의 여신으로 여기고 엄청난 기세로 터키군을 무찌르며 끝내 승리한다. 막커와 코라는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결국 막커만 살아남고 코라는 죽게 된다. 이후 플로렌스와 막커는 결혼식을 올리고 죽은 코라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작품의 제목은 부부가 된 플로렌스와 막커로 대표되는 세르비아인들의 ‘철혈’과 같은 민족정신을 상징한다.

기실 이러한 내용의 「철혈원앙」은 앞서 살핀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달리, 오직 발칸전쟁만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작품 내적인 서사만으로는 그것의 관전사적 의미를 충분히 읽어내기 어렵다. 이에 동시대 세계대전에 관한 작가의 전유 양상 및 그와 관련된 작품의 집필 의도를 관전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작품 외적인 맥락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참조하기로 한다.

우선 「철혈원앙」이 다루는 발칸전쟁과 그 무대로서 세르비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작중 세르비아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다.

발칸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비아는 터키국 세력 범위 안에 있어 그 학대와 유린을 당한 지 오랜지라. 그러나 정부의 힘이 약하여 능히 이를 향거지 못하였으며 인민은 심히 분하게 여기지마는 정부에 눌러 드러내

놓고 시비하거나 배척하지 못하였다. (중략) 터키에 대한 악감정은 더욱 깊어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우리가 기위 죽을진대 시원하게 죽는 것이 가하니 어두운 밤에 새색시 더듬 듯하지 말고 **한번 용맹스럽게 일어나 터키국 사람을 도륙하자**⁵¹⁾

작품은 발칸전쟁의 원인을 터키의 오랜 지배와 학대를 받았던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적 저항에서 찾고 있다. 작가는 세르비아인들을 죽음조차 무릅쓰고 항전을 결의하는 ‘용맹’한 민족으로 묘사한다. 이때 터키와 세르비아의 관계는 침략자와 저항자의 관계⁵²⁾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의 독일과 프랑스의 그것에 비견될 만하다. 앞서 백일규가 프랑스 민중의 저항정신을 부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언은 세르비아의 그것을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하고자 했던 것이다. 용맹한 세르비아인들의 모습은 곧 그가 요구한 식민지조선 민족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선에서 작중 세르비아인들은 식민지조선을 비롯한 피억압 민족의 전형이 된다. 또한 세르비아의 저항과 발칸전쟁에서의 승리는 숭고한 ‘독립전쟁’의 당위로 의미화된다. 앞서 백일규가 보불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끝내 그들의 승리를 그리지는 않았던 것과 다르게, 홍언은 독립전쟁을 통한 피억압 민족의 승리와 해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51) 동해수부, 「철혈원앙」, 『신한민보』, 1916.5.11., 4면. 강조는 인용자.

52) 「철혈원앙」에서 홍언이 그리는 저항자로서의 세르비아인의 모습은 발칸전쟁과 관련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신한민보』의 매체적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터키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홍언이 터키를 철저히 야만적인 침략국으로 묘사한 것과 다르게, 『신한민보』의 터키 표상은 그렇게만 환원되지 않는 기사들도 더러 있다. 가령 「비밀한 나라 터키는 어떠한가」(1917.10.11.)는, 독일-오스트리아 동맹에 속한 터키에 대한 연합국 측의 부정적인 시선과 묘사에 대한 반대로써 작성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모든 교전국민이 그러하듯, 터키국민 역시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터키는 독일-오스트리아 동맹으로부터 분리·강화를 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적고 있다. 즉 「철혈원앙」에 그려지는 터키 표상은 『신한민보』의 시선과 큰 관련이 없으며, 이분법적 구도에서 세르비아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홍언이 의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언은 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발칸전쟁의 세르비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집필한 것일까. 그것은 발칸전쟁에 대한 『신한민보』의 보도 양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발칸전쟁이 발발하자 『신한민보』는 대부분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짧은 기사의 형태로 전황을 보도했다. 즉 발칸전쟁의 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전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1912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신한민보』가 휴간됨에 따라 당시 발칸전쟁에 대한 보도는 양적으로도 많지 않은 양상이었다.⁵³⁾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러한 양상은 사뭇 바뀐다. 무엇보다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이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청년⁵⁴⁾의 소행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발칸반도와 세르비아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신한민보』는 전황을 보도함과 동시에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글을 여럿 실는다. 특히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대표적인 특집 기사로 「유럽 전쟁 원인의 개략」⁵⁵⁾을 들 수 있다. 약 1달 동안 연재된 이 글은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소개하는데, 그중 세르비아에 대해서는 터키나 오스트리아 등 열강의 오랜 간섭을 받았던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라고 적는다. 그러면서 것처럼 힘없고 작은 나라를 위하거나 동정하는 주변국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이외에도 세계대전 중 발칸전쟁을 다시 소환하여 서사적으로 재구성하

53) 발칸전쟁에 관한 『신한민보』의 최초의 보도는 「발칸반도의 풍운」(1912.11.4.)에서 확인된다. 지속되던 발칸전쟁에 대한 보도는 복간 이후로 이어진다. 「썬비아 군 승리」(1913.7.3.), 「평화희망」(1913.7.3.), 「발칸 전장 참상」(1913.7.11.), 「발칸 휴전」(1913.8.8.) 등이 있다.

54) 김미연은 사라예보 사건의 가브릴로 프린치프를 주인공으로 하는 미국의 소설 「세르비아의 새」가 1920년 김동성에 의해 「농조」로 번역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김미연, 「1차 세계대전과 미스터리 소설-1920년대 초 김동성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4, 86-93면.

55) 「유럽 전쟁의 개략」, 『신한민보』, 1914.8.13.-9.10.

는 기사들도 등장한다. 「썬비아 여신」⁵⁶⁾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사에서는 조국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민족으로 세르비아인을 묘사한다. 이러한 기사들에서 보인 당대 1차 세계대전과 과거 발칸전쟁에 대한 인식은, 두 전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며 세르비아의 역사는 피억압 민족으로서 동질감마저 자아내는 것이었다. 이는 흥언이 「철혈원앙」을 집필하는 데 분명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기사 「썬비아 여신」의 제목은 작중 플로렌스가 국기를 든 전장의 여신으로 그려지는 다음의 장면과도 맞닿아 있어 그 영향 관계가 보다 직관적이다.⁵⁷⁾

플로렌스가 단걸음에 쫓아가나 국기를 집어 드니 이때에 플로렌스의 것이 벗어지며 머리가 풀어져 황금 같은 누런 머리가 바람에 날린다. 연합군은 전쟁여신이 발칸반도를 위하여 인세에 강림한 줄 알고 용기가 일층 더하여 발칸 만세를 부르며 터키 진군을 만나는 대로 도륙한다.⁵⁸⁾

주지하듯 ‘예고된’ 전쟁으로서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지속되던 여러 전쟁들의 연속선상에 놓이며 그중 발칸전쟁은 가장 가까운 계기⁵⁹⁾로 평가된다.⁶⁰⁾ 위와 같이 『신한민보』 역시 1차 세계대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발칸전쟁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르비아로 대표되는 피억압 민족의 저항정신에 근거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세르비아에 대한 관

56) 「썬비아 여신」, 『신한민보』, 1915.3.18., 4면.

57)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 1』, 월인, 1999, 122-125면.

58) 동해수부, 「철혈원앙」, 『신한민보』, 1916.12.7., 4면.

59) 그런 점에서 1차 세계대전은 개전 초기 앞선 1, 2차 발칸전쟁의 연속이라는 의미에서 3차 발칸전쟁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60) 발칸반도의 분쟁으로부터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로 정상수, 「1914년 7월 위기-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길목에서」, 『역사교육』 125, 역사교육연구회, 2013; 이영수·박상남,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발칸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과대안』 14,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주로 참고.

심과 호의는 발칸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수성이 한반도를 둘러싼 식민지조선의 그것과 일견 유사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조선은 곧 ‘동양의 발칸⁶¹⁾’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신한민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조선의 지식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무렵부터 한반도를 발칸반도에 종종 비유하곤 했다.⁶²⁾ 그 맥락은 주로 발칸반도가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던 만큼 한반도에 서는 그와 같은 전쟁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무대의 관심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한민보』의 기사들을 비롯하여 흥언의 「철혈원앙」이 놓이는 지점은 사뭇 다르다. 발칸전쟁을 세계대전의 한 원인으로 분석한 『신한민보』의 기사들과 더불어, 「철혈원앙」은 동시대 세계대전 속에서 과거 발칸전쟁을 서사화하였다. 이때 피압박 민족 세르비아의 항전은 정당하고 숭고한 ‘독립전쟁’으로 표상되었다. 이를 접한 『신한민보』의 독자들은 작중 발칸반도의 세르비아로부터 한반도의 식민지조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특히 발칸반도는 저항과 해방의 공간으로 상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발칸반도로부터 번진 동시대 세계대전 역시 피압박 민족의 저항과 해방의 계기이자 당위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철혈원앙」이 발칸전쟁을 서사화한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동양의 발칸이라는 이름으로 긍정하며, 동시대 세계대전의 상황으로부터 식민지조선의 독립 가능성을 되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핀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의 경우와 다르게, 훨씬 적극적으로 세계대전과 식민지조선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61) 한철호에 따르면 한반도에 대한 발칸의 비유는 1890년대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로부터 확인된다. 다만 이때의 맥락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철호, 「일본 자유민권론자 大石正巳(1855~1935)의 한국 인식」,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1027-1032면.

62) 이에 대해서는 최우석, 앞의 논문, 179-182면 참고.

그러나 여전히 문학이 아닌 현실의 가능성은 아득하기만 하다. 여기에 “지극히 상상적인 차원”에서나마 동시대 세계대전은 식민지조선이 “세계사적 동시성을 처음으로 확보하게”⁶³⁾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을 경유해보자. 피억압 민족의 저항의 계기이자 해방의 당위로서 세계대전을 인식한다면, 그것의 진원지였던 유럽의 발칸과 지구 반대편 동양의 발칸의 시간성은 ‘비동시적’인 것으로 감각된다. 즉 동양의 발칸은 언제나 후진에서 유럽의 발칸을 바라볼 뿐이다. 흥언이 「철혈원앙」을 통해 서사화한 세르비아의 숭고한 독립전쟁 역시 유럽의 발칸과 동양의 발칸 간의 ‘비동시적’인 시간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러한 ‘비동시적’인 시간성을 ‘동시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작품에서 서사의 무대를 동양의 발칸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철혈원앙」의 연재를 마치고 약 4개월 뒤 희곡 형태의 서사물 「동포」⁶⁴⁾를 연재한다. 비록 미완이지만, 이 작품의 소재는 식민지조선에서 벌어진 ‘가상의 독립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주된 내용은 식민지조선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일본 본토까지 점령하여 반대로 일본을 식민지로 삼는 것이다. 작중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이나 미국과의 연합에 대한 논의가 오가지만, ‘동포’라는 제목 그대로 오직 같은 민족의 힘으로만 이 독립전쟁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벌어진 전쟁은 ‘이순신’ 세 글자가 적힌 배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극기가 걸린 일본의 황궁에서 독립군 사령관과 천황이 을사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맺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개입한다. “독자는 응당 기억하리라. 이곳은 이왕(李王) 융희제가 일황을 대하여 무릎을 꿇던 곳이다. 일황은 막연히 옛일을 생각하여 잠깐

63) 김동식, 앞의 논문, 186면.

64) 동혜수부, 「동포」, 『신한민보』, 1917.8.30.-12.20. 이 작품은 2년 전에 발표한 「반도영웅」(1915.2.4.)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눈물을 뿌리니 ... 조그마한 섬사람이야 원래 그 담통이 작으니 경황망조 하는 거동이 보기에 참으로 가련하다.”⁶⁵⁾ 작중 묘사되는 독립전쟁의 양상이나 작가의 목소리에 가득한 민족주의의 과잉은 다소 희극적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가상의 독립전쟁 내용은 조금 나중이긴 하지만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1923년에 발표한 소설 「희문열혈」⁶⁶⁾은 전반부에서는 3.1 운동 당시의 현장을, 후반부에서는 3.1 운동의 좌절과 가상의 독립전쟁을 그린다. 3.1 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했던 인물들이 독립군을 조직하여 서울로 진격,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그려진 ‘가상의 독립전쟁’은 동양의 발칸에서 홍언이 바라는 이상적인 역사의 한 극단일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을 식민지로 삼겠다는, 식민주의에 기댄 배타적 민족주의마저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왜 이러한 상상을 했는가 혹은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기 위해 이들 텍스트가 놓인 시간성에 주목해 보자.

「철혈원앙」은 1916년부터 1917년 4월까지 연재되고, 곧이어 「동포」가 1917년 12월까지 연재되었다. 세계대전의 맥락에서 「철혈원앙」의 연재가 종료될 시점, 중립을 표방하던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같은 해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세계대전의 국면은 그렇게 전환되고 있었다. 당연히 ‘전후(戰後)’에 대한 상상도 가능할 법했다. 그러나 아직 그 전후사회를 대표할 언어가 될 ‘민족자결’이나 ‘일손적 순간’⁶⁷⁾은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다. 바로 이 지점, 전후의 문턱에 와 있되,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거나 넘어설 수 없던 상태의 임계에 「철혈원

65) 동해수부, 「동포」, 『신한민보』, 1917.11.29.

66) 동해수부, 「희문열혈」, 『신한민보』, 1923.2.1.4.12. 이 작품의 장르 구분 역시 모호한데, 표제에 ‘소설’이라고 적혀있지만, 작품의 제목인 ‘희문’은 희곡을 말한다. 여기서는 일단 표제를 근거로 잠정적으로나마 소설로 분류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전영지, 앞의 논문, 217-223면.

67) 윤영실, 「식민지의 민족자결과 세계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58-61면.

앙」과 「동포」가 놓일 수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철혈원앙」은 전후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질 무렵, 그 문턱에서 다시금 세계대전의 계기로서 전전의 발칸전쟁을 피억압 민족의 독립전쟁으로 서사화했다. 그러나 그 독립전쟁은 어디까지나 유럽의 발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뿐, 동양의 발칸은 여전히 그와 비동시적인 시간에 존재했다. 그래서 이후 「동포」에서는 동양의 발칸으로부터 상상된 독립전쟁을 제치 함으로써, 「비동시적」인 시간성을 단숨에 「동시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반드시 비약이 따르는 만큼, 과잉된 민족주의의 서사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다. 요컨대 「철혈원앙」과 「동포」는 동시대 세계대전 위에서 그 전후를 상상하며, 과거 발칸전쟁과 미래 가상의 독립전쟁을 연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관전사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그것의 목적은 단연 피억압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기획에 닿아 있다. 국가 상실-부재의 상황에서 민족의식은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철혈원앙」과 「동포」의 독립전쟁에 점철된 민족주의의 수사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흥언이 보인 탈식민화의 기획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민족주의 자체의 한계이자, 나아가 탈식민화의 실패 혹은 불가능성조차 의미한다. 이는 특히 「동포」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식민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탈식민화는 언제나 폭력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68)다는 오랜 지적을 경유하더라도, 일본을 식민지로 삼아 똑같이 되갚아 주자는 식의 복수주의는 실로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억압 민족의 해방이란 곧 식민주의 이후/너머를 상상하는 힘이어야 한다. 그러나 식민주의 역시 근대의 산물이므로, 마찬가지로 근대의 산물인 민족주의의 수사로는 그 이후/너머에 가닿지 못한 채 여전히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68)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10, 33면.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1910년대 『신한민보』 연재 서사물들 가운데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흥언의 「철혈원앙」을 주요 대상으로 1차 세계대전의 전유 양상을 살폈다. 이들 작품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연재 발표된 작품들로서, 당시 서구의 전쟁(들)을 서사에 전면화하는 특징이 있다.

백일규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은 독일과 프랑스를 배경으로 세계대전의 개전 상황을 그린다. 작중에서 형상화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침략자와 저항자의 관계이며, 작가는 특히 프랑스의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작품에서 과거 보불전쟁과 현재 세계대전 사이의 관전사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백일규는 과거 보불전쟁의 패배의 기억으로부터 현재 독일의 침략에 맞서고자 하는 프랑스 민중을 통해 『신한민보』 독자들의 민족의식과 항전의지를 자극하였다. 흥언의 「철혈원앙」은 발칸전쟁 당시 세르비아의 터키에 대한 항쟁과 승리를 그린다. 앞서 백일규의 경우와 비슷하게, 작중 터키와 세르비아의 관계는 침략자와 저항자로 표상되며 역시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은 『신한민보』의 매체적 성격과 재미 한인독자들의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일견 당연한 것이다.

다만 백일규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서사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것과 식민지조선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는 세계대전과 식민지조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한탄하며 세계대전을 백인의 유럽 즉 ‘남의 전쟁’으로 인식한다. 그는 세계대전을 식민지출신 재미 한인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전유하지 못한 채, 민족의식의 자극과 같은 다소 평범한 서사전략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흥언은 과거 발칸전쟁을 세르비아의 숭고한 독립전쟁으로 의미화하며 그로부터 동시대 세계대전의 계기와 의미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곧 발칸전쟁과 세

계대전을 한데 이으며, 세계대전의 성격을 세르비아를 비롯한 피억압 민족의 독립전쟁으로 전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한 것이 발칸반도인데, 「철혈원앙」 이후 「동포」에서 홍언은 매우 전복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식민지조선을 동양의 발칸으로 의미화하고 가상의 독립전쟁을 그린다. 이러한 홍언의 텍스트는 동시대 세계대전 위에서 과거 발칸 전쟁과 미래 가상의 독립전쟁을 배치함으로써 독특한 관전사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다만 가상의 독립전쟁을 그리는 비약의 과정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식민주의를 결합하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기실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조선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전유한 문학작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1910년대 『신한민보』의 사례 이외에, 동시기 국내 『매일신보』에는 작자미상의 「구주열국지」⁶⁹⁾라는 제목의 역사전기물이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당시 국내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을 서사화한 유일한 작품으로 확인된다. 이 작품에 대한 현재 유일한 연구인 박성호의 연구⁷⁰⁾에 따르면, 작품의 내용은 대체로 홍미 위주의 서사구성을 보이는데, 전황과 관련한 사실을 소재로 유럽의 유명한 장군들의 대결 양상을 주로 다룬다. 이러한 내용은 세계대전에 대한 『매일신보』의 보도 양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품의 제목에서 짐작되듯, “예전 한나라 때의 삼국지와 같은 싸움에는 비하지 못할 세계에 큰 싸움”⁷¹⁾인 동시대 세계대전을 동양의 고전 열국지에 빗댄 작품의 기획 의도는 그 자체로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참전 및 승리 이후로 점차 작품의 내용이 소위 친일적인 태도를

69) 「구주열국지」, 『매일신보』, 1914.8.14.-1915.3.11. 「구주열국지」의 마지막 회는 146회로 적혀있지만, 47화 및 136회의 중복표기로 인해 실제 연재된 분량은 148회이다.

70)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 유일하다. 박성호, 「식민지 초기 역사전기소설의 사실(史實) 변용 양상 연구」 『매일신보』 소재 「구주열국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71) 「구주열국지」, 『매일신보』, 1914.8.14.

견지하게 되며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모종의 이유로 연재는 중단된다.

동시대 서구의 전쟁담을 서사에 전면화하는 것은 『매일신보』의 「구주열국지」나 『신한민보』의 「세계에 제일 큰 연극」과 「철혈원앙」 모두 비슷하다. 다만 「구주열국지」는 ‘세계에 큰 싸움’인 세계대전을 어디까지나 독자의 흥미요소로 제시하였다. 그것과 식민지조선의 연관성 역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사의 중반부 이후로는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인 등의 애국심을 그린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전반부의 주요 내용이 명장과 군인들의 대결이었던 것과 달리, 무명씨들의 희생과 조력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일견 앞서 살핀 『신한민보』의 두 작품이 프랑스와 세르비아의 민족의식을 강조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이후 「구주열국지」의 주요 내용이 일본군의 참전과 위용을 부각하는 것으로 흘러감을 고려할 때, “전쟁 참여국이 된 일본의 입장을 선전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독려하기 위한 『매일신보』의 입장과도 관계”⁷²⁾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작가의 기획의도나 매체의 특징과 그것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탓에 논증하기는 어렵지만, 무명씨들의 애국심을 강조한 「구주열국지」의 위의 장면들은, 작가나 매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자들의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동시기 『매일신보』와 『신한민보』의 사례의 세부적인 비교는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테지만, 동시대 1차 세계대전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그것을 전유한 구체적인 문학작품의 사례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이 글에서 살핀 『신한민보』의 백일규와 홍언의 사례는 당시 식민지조선 출신 재미 한인들이 1차 세계대전과 어떻게 접

72) 박성호, 앞의 논문, 113면.

속하였으며 그로부터 어떠한 기획과 구상을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요컨대 백일규의 작품이 1915년의 참여할 수 없음-대안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홍연의 작품은 1917년 전후의 문턱에서 그 이후를 상상했다.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전후처리와 더불어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폭발적으로 흘러넘치게 된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식민지조선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것도 『신한민보』였다.

미증유의 사건이었던 종전의 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유산을 남긴 채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 유산은 꾸준히, 그리고 산발적으로 지속되어 세계대전의 이후/너머를 모색하게 했다. 그것이 남긴 1918-1919년 무렵의 유산들이 1920-3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지속·변모되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매체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로부터 다시금 이 글의 서두의 질문에 조금 더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신한민보』, 『매일신보』

조규익, 『해방전 재미한인 이민문학1-6』, 월인, 1999.

백일규, 「세계에 제일 큰 연극」, 『신한민보』, 1915.5.13.-7.8.

홍언(동해수부), 「철혈원앙」, 『신한민보』, 1916.5.4.-1917.4.19.

2. 단행본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이만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진화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1.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홍선표, 『재미 한인 독립운동을 이끈 항일 언론인 백일규』, 역사공간, 2018.

나카무라 마사노리, 유재연·이종욱 옮김, 『일본전후사 1945~2005』, 논형, 2006.

이리에 아키라, 조진구·이종국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연암서가, 2016.

하라 아키라, 김연옥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동아시아 50년 전쟁 1894-1945 다시보기』, 살림, 2015.

로버트 거위스, 최과일 옮김,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 김영사, 2018.

마크 마조워, 김준형 옮김, 『암흑의 대륙』, 후마니타스, 2009.

야마무로 신이치, 정재정 옮김, 『러일전쟁의 세기』, 소화, 2010.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한길사, 1998.

에릭 홉스봄,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 2001.

오스발트 슈팽글러, 양해림 옮김, 『서구의 몰락』, 책세상, 2019.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10.

3. 논문

강은혜, 「일제강점기 망명지문학과 지하문학」, 『서강어문』 3, 서강어문학회, 1983, 129-174면.

권보드래, 「영혼, 생명, 우주-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과 '죽음'의 극복」, 『개념과 소통』 7,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1, 5-34면.

- 권보드레, 「미래로의 도약, 3·1 운동 속 직접성의 형식」,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4, 51-78면.
- 김동식, 「진화(進化)·후진성(後進性)·1차 세계대전『학지광(學之光)』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57-188면.
- 김미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H. G. 웰스 이입과 담론 형성」, 『사이間SAI』 2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13-54면.
- 김미연, 「1차 세계대전과 미스터리 소설-1920년대 초 김동성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4, 79-109면.
- 김선아, 「백일규의 민족운동과 재미한인단체 연합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235-277면.
- 김아연, 「홍언 제2차 세계대전 소재 시조의 내용과 작자의식」, 『한민족어문학』 88, 한민족어문학회, 2020, 85-120면.
- 김아연, 「홍언 노인시조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표현방식」, 『한국시가문화연구』 53,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35-60면.
- 김영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 1907~1919년까지 「공립신보」와 「신한민보」에 게재된 출판물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준석, 「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비평』 108, 역사비평사, 2014, 154-187면.
- 김진실, 「20세기 전반 재미한인문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문준호, 「『매일신보』의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보도 추이 분석: 대전 발발부터 동아시아 연대론 주창까지」, 『아시아리뷰』 21,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21, 291-320면.
- 박성호, 「식민지 초기 역사전기소설의 사실(史實) 변용 양상 연구-『매일신보』 소재 「구주열국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91-119면.
- 박인원, 「네이션 빌딩과 여성영웅의 서사」, 『카프카연구』 31, 한국카프카학회, 2014, 211-234면.
- 손성준, 「도구로서의 제국 영웅-20세기 초 한국의 비스마르크 전기 번역」, 『현대문학의연구』 4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7-58면.
- 손성준, 「동아시아 번역장(翻譯場)과 이중의 번역 경로-『조양보』속 비스마르크의 형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385-417면.
- 송명진, 「역사·전기소설의 국민여성, 그 상상된 국민의 실체」, 『한국문학이론과비평』 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249-270면.
- 송명진, 「지리적 경계의 일탈과 개화기 소설의 지속과 변이-1910년대 『신한민보』 소

- 재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회, 2014, 249-273면.
- 양수민, 「『청백』 지식인 그룹의 관전사(trans-War History) 의식과 한국전쟁의 재의미화」, 『한민족문화연구』 85, 한민족문화학회, 2024, 7-34면.
- 염창동, 「하근찬 장편소설 『야호』의 관전사(貫戰史)적 연구」, 『현대문학의연구』 6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55-287면.
- 우수진, 「피식민 디아스포라의 억압과 욕망의 드라마-1910년대 재미한인의 희곡 연극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67, 한국연극학회, 2018, 47-74면.
- 윤영실, 「식민지의 민족자결과 세계민주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5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 53-107면.
- 이영수·박상남,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서 발칸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간 후견-피후견 관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과대안』 14,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83-114면.
- 이유미, 「식민지 한국 정치소설의 모색과 이항우-미주(美州) 발간 『신한민보』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59-191면.
- 이태훈, 「1910~20년대 초 제1차 세계대전의 소개양상과 논의지형」, 『사학연구』 105, 한국사학회, 2012, 187-227면.
-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 『사이間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155-193면.
- 전영지, 「일제시대 재미 한인의 다큐드라마 『신한민보』 게재, 「세계에 데일 큰 연극」과 「희문 열혈」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9, 한국연극학회, 2016, 199-231면.
- 정상수, 「1914년 7월 위기-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길목에서」, 『역사교육』 125, 역사교육연구회, 2013, 293-336면.
- 정한나, 「에스닉 미디어는 동포의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구보학보』 36, 구보학회, 2024, 57-101면.
- 조명철, 「청일·러일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 한일관계사학회, 2010, 263-289면.
- 최기영, 「미주지역 민족운동과 흥연」, 『한국근현대사연구』 6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44면.
- 최우석, 「식민지 조선인의 제1차 세계대전 인식과 3·1 운동」, 『사림』 70, 수선사학회, 2019, 161-189면.
- 한철호, 「일본 자유민권론자 大石正巳(1855~1935)의 한국 인식」,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1023-1054면.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37-54면.

허수, 「20세기 초 한국의 평화론」, 『역사비평』 106, 역사비평사, 2014, 37-68면.

<Abstract>

The Appropriation of World War I in *The New Korea(Shinhan-Minbo)* in the 1910s from a Trans-War Historical Perspective

—Focusing on Baek Il-gyu's *The Biggest Theatre in the World* and Hong Eon's *Iron-Blooded mandarin duck*

Ryuem, Changd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literary appropriation of World War I through Baek Il-gyu's *The Biggest Theatre in the World* and Hong Eon's *Iron-Blooded Mandarin Duck*, both of which were serialized in *The New Korea(Shinhan-Minbo)*.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World War I on colonial Korea, literary works that appropriate the contemporary war are extremely rare. These two works are distinctive in that they recognize World War I as a continuation of past wars, both narratively and contextually. The article focuses on this aspect and analyzes the two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war history. This is a preliminary study to examine the spatiotemporal expansion potential of the trans-war historical perspective.

Baek Il-gyu primarily emphasizes the continuity between the Franco-Prussian War and World War I to highlight the French people's national consciousness and spirit of resistance. However, he laments that the contemporary World War I does not have a direct connection to colonial Korea. Unable to find a prospect for his country's independence in the European war, he expresses a sense of distance from it. Although this work is the first to narrate World War I in *Shin Han Minbo*, it does

not fully appropriate its connection to colonial Korea.

In contrast, Hong Eon more actively appropr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War I and colonial Korea. In *Iron-Blooded Mandarin Duck*, he presents the Balkan War, one of the causes of World War I, as a noble independence war, driven by admiration for Serbian nationalism. Moreover, he perceives the Korean Peninsula as the "Balkans of the East," and in his follow-up work *Compatriots*, he offers a highly political imagination of victory and liberation through a fictional independence war. However, this imagination is limited because it is presen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exclusionary nationalism and colonialism. Hong Eon's work forms a trans-war historical structure that connects the past Balkan War, the contemporary World War I, and a fictional future independence war.

Key words: World War I, *The New Korea(Shinhan-Minbo)*, Trans-War History, Baek Il-gyu, *The Biggest Theatre in the World*, Hong Eon, *Iron-Blooded mandarin duck*

투 고 일: 2024년 11월 28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